

12가지 문제에 빠진 사람들과 참지혜와 참복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 복음으로 여는 열왕기상 -

열왕기상3:1-12, 고린도전서1:21

정윤돈 목사님

“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사탄에게 속아 이 땅에서 6가지 고통, 12가지 고통, 오만가지 고통에 빠져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주시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증인이며, 제자가 되어서 나부터 살리고 우리 가정을 미션홈으로 만들며 현장에서 지교회를 하다가 세계, 237나라,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주역이 되며 서밋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과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왜냐하면 그 안에 부와 권력과 행복과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도 속에 모든 참지혜와 지식과 참된 삶의 가치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면 최고의 리더자이다.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전도 못한다. 진짜 전도는 쉽지 않다. 전도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며 지혜이다.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참된 지혜와 참된 복음의 길을 선택한 전도자들과 12가지 문제의 울무, 툄, 함정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 할 수 있다. 오늘은 열왕기상을 중심으로 이러한 복음적인 말씀은 나누고자 한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과 아합 왕과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라고 보면 가장 기억하기 쉽다.

1. 첫 번째로, 열왕기상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불신앙과 사탄에게 속아 불신자의 12가지 상태의 잘못된 길을 걸어간 인물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첫 번째 인물은 요압장군이다. 그는 언약의 흐름을 알지 못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 하였다. 열왕기상 1장 7절에 보면,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따르고 도우나’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열왕기상 1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제사장 사독과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같이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열왕기상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

과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다면 다윗의 최고 장군이었던 요압은 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언약적인 기준, 수준, 표준이 아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으로 우리아를 죽음의 전쟁터로 보냈고, 인구계수를 반대하였지만 다윗의 재촉으로 인구를 계수하였던 인물이었다.

(2) 다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다. 이방 왕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이고 그가 섬기는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아합 왕은 권력에 취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하였다. 즉 그는 자신의 위치 때문에 교만해져서 강단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3) 다음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그녀는 우상숭배하는 시돈 왕 옛바알의 딸이었다. 열왕기상 16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이세벨은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신전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 섬겼다. 그리고 여호와와 모든 선지자를 멸하려하였다. 열왕기상 18장 4절 앞부분에 ‘이세벨이 여호와와 선지자를 멸할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하였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이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이세벨은 반성할 줄도, 깨달을 줄도 모를 만큼 지혜롭지 못했다. 결국에는 사탄에게 지배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남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자 나봇을 높은 후 모략하여 나봇을 역적으로 몰아 죽인 후 그 남편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선물해 주었다. 열왕기상 21장 9절에서 10절이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려 하였더라’

(4)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이다. 열왕기상에는 여러 명의 왕들이 등장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 불신자 상태 6가지의 길을 걸어갔다. 그 대표적인 왕이 여로보암, 르호보암, 오므리, 이합 왕들이었다. 왕들은 최고의 권력과 물질을 얻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셔서 그 자리에 가게 되었는데 사람이 변질된다. 성공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과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2. 두 번째로, 열왕기하에 등장한 사람들 중에 참지혜와 참진리의 길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1) 첫 번째는 지혜를 구한 렘넌트 시절의 솔로몬이다. 솔로몬은 어려운 상황에서 왕이 된 후,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리

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자,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였다. 이 대답이 마음에 들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약속하셨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도 말년에 타락하였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는 것이 솔로몬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회개하고 솔로몬은 참된 진리, 참된 지혜, 완전복음을 선택하였다. 그 증거가 바로 전도서이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흑시 부족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전도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다.

(2) 다음은 중직자 엘리트 공무원 오바다이다.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중직자였다. 열왕기상 18장 3절을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오바다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려 할 때에 선지자 백 명을 굴에 숨기고 보호해 주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백 명을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담당한 복음엘리트였다. 여러분도 이러한 언약의 길을 걸어가기 바란다.

(3) 엘리야 선지자이다.

① 엘리야는 기도하여 비를 멈추게 하기도 하며, 내리게 하기도 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대표적인 영적서밋이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라고 아합 왕에게 말하였다. 우리도 조금만 집중해서 깊은 기도를 한다면 미래를 앞당겨 볼 수 있다. 이렇게 절대불가능한 것을 절대가능한 것으로 미리 보는 것이 성령충만한 영적상태이다. 미래가 불안하면 더욱 기도하라. 그렇게 되면 우리도 엘리야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② 그는 악한 왕인 아합 왕에게 목숨을 걸고 바른 복음을 전하였다. 또한 바알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하였다. 그러나 이 세벨의 위협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악한 면도 보였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답을 찾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4) 다음은 사르밧 과부이다. 그는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하나님의 종을 대접한 믿음의 여인이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나 그

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결국 큰 경제적인 응답과 후대의 응답을 보았다.

(5) 다음은 엘리사이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엘리사는 열두 겨릿소를 끄는 농사를 지었던 부자였다. 그런데 전도자의 소명을 받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전도자의 길로 뛰어들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이다. '엘리아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겨릿소를 앞세우고 받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겹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다음은 열왕기상 19장 21절을 보겠다. '엘리아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 참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다고 참진리를 위해 결단한 갑절의 축복의 의미를 이해한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소명을 받았을 때 다른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고 언약의 길을 걸었다.

(6) 다음은 7000명의 제자들이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도 현장에 가면 우상과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열왕기하에 나온 언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참 지혜와 참된 복음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1) 5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CVDIP를 미리 보았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 6가지를 미리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3) With, Immanuel, Oneness의 축복을 미리 누렸기 때문이다.

(4)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을 통하여 현장을 미리 정복하였기 때문이다.

(5) 오직, 유일성, 재창조와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237 선교와 RUTC를 미리 성취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같이 참여하고, 영상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함께 한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에 세계를 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시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준비된 7천 제자를 만나는 응답의 주역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